

제3자가 인수한 융통어음의 채무관계는?

회사를 경영하다보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하지만, 그때마다 번거롭게 거래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은데다 거래회사의 자금사정이 나빠져 들어와야 할 돈이 제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척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다. 이럴 때 경영자에게 빛과 소금 같은 것이 '융통어음'이다. 융통어음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써야 효과가 있을까?

글_ 황선익 변호사(정부법무공단)



급한 자금난 해소에 편리한 융통어음

회사의 자금난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평소 친분이 있는 회사 사이에 자금융통의 편의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자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거나 다른 사람이 발행한 어음을 자금 융통의 목적으로 인수·배서 등을 해주어 상대방이 할인한 후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하되 그 어음에 대해서는 할인해 쓴 쪽에서 책임지고 결제하기로 약속을 하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약정에 따라 발행 또는 유통되는 어음을 '융통어음'이라고 부른다.

융통어음을 사용한 쪽에서 만기 전에 회수하거나 결제를 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갑작스런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융통어음 발행했는데 제3자가 지급청구 할 경우

A가 B를 위해 융통어음을 발행해 준 경우, 두 사람 사이에는 B가 어음금의 결제를 책임지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융통자인 A는 피용통자인 B에 대해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융통어음이 당초 계획과 달리 유통돼 제3자가 취득한 후 융통자인 A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해 이른바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용통자에 대해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그 어음을 양도받은 제3자에 대해서는 융통어음이라는 사정을 알았던 몰랐든 불문하고 대가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융통어음은 제3자에 대해서 어음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전제한 상태에서 피용통자에게 금융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용통자가 융통어음과 교환하여 그 액면금액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융통자에게 담보로 주었는데 그 담보어음이 지급 거절됐다는 사정을 제3자가 알고 있었다면, 융통자는 제3자에 대해 융통어음이라는 이유를 들어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융통수표를 합의한 내용대로 금융의 목적에 사용한 후 다시 이를 반환받았다면 피용통인은 다시 금융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자금융통으로 사용한 경우, 제3자가 융통수표라는 사정 및 목적달성 후 재사용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인은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신 지급한 어음금, 구상금 청구 가능할까?

A가 B를 위해 융통어음을 발행해 주었는데, D은행의 업무처리준칙 때문에 D은행과 관련이 있는 C가 배서를 한 후 D은행으로부터 어음을 할인했으나 B가 제때에 결제를 못해 어쩔 수 없이 A가 약속어음금을 지급했다면, A는 제2배서인인 C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제3자에 대해서는 융통어음이라는 이유로 어음금 지급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A가 D은행에 어음금을 지급한 것은 어음발행인으로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A가 어음금을 지급함으로써 C가 D은행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결과가 되었더라도 C는 배서인에 불과하므로 A는 C와의 관계에서 어음금에 대한 상환이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융통어음을 발행해 주는 행위에는 융통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것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대법원은 '어음행위를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에 적힌 내용에 따라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하게 되므로,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자금융통 목적으로 발행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수취인이 융통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융통어음은 급전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있어 신속하게 자금을 확보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예상치 못한 외부적 요인 등으로 인해 융통자와 피용통자 모두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만큼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